

**【제76차】 철학적 시간론**  
소광희(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시간은 세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상식-과학의 차원, 종교의 차원, 철학의 차원이 그것이다. 상식-과학의 차원의 시간은 시간에 관한 논의의 기본이 된다. 이 차원에서의 문제는 달력의 제작, 시계의 제작, 시간측정을 둘러싼 과학이론 등이다.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모아지는 종교적인 시간은 직선적인 특징을 보인다. 반면 철학적 시간론에서 시간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 시간의 외적 대조항으로서 영혼이고, 둘째는 시간의 아르케에 관한 파악 문제이다. 시간의 아르케를 내부적으로 운동과 관련해 볼 것인가 의식과 관련해서 성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간은 영원을 원상으로 해서 영속적으로 운행하는 천체의 규칙적 순환으로 간주되었다. 시간의 제작이라는 관념을 이끌어낸 플라톤을 선구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비껴가고 있지만 시간을 선후 관점에서 헤아려진 운동의 수라고 봄으로써 상식-과학적 시간관의 틀을 마련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자연의 운동과 관련시키는 동시에 헤아려지는 수와 연관시켜 시간의 의식관련성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시간은 운동을 아르케로 파악하는 자연과학적 시간론과 의식을 아르케로 파악하는 철학적 시간론으로 분리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내재적 명증성 확보, 즉 시간의 주관화의 대가로 시간 측정의 문제를 희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계량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의 측면은 뉴턴의 절대시간으로 대표되는 자연과학의 몫이 되었다. 영원의 개념은 보에티우스와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신의 필연성 개념이 도입되어 이야기되었지만, 스피노자가 기하학적인 필연성에서 영원의 개념을 본 이후 근대에서는 영원개념이 인간의 사유 속으로

내재화했다. 칸트에게 시간은 인식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시간은 계기로만 파악되었다. 헤겔은 추상적이면서 감성적인 시간을 공간의 진리라 한다. 공간론과의 유비를 통해 공간의 시원인 점과 지금을 동일시 하고 역사를 정신의 시간으로 파악한다. 자연의 시간은 지금의 무한한 반복이고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의 양상은 의식 안에서만 성립한다고 본다. 이런 계기를 갖고 생각할 때, 헤겔의 논리학은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론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 설득력있게 제시될 수 있다. 공간화된 등질적 시간과 지속의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베르그송은 전자를 헤아려질 수는 있지만 흐름의 계기가 없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체험적 시간은 의식의 부단한 지속이고 직관과 기억이 그 핵심에 놓인 것이다. 후설의 시간론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반성하는 자아이다. 이것은 익명적인데, 후설은 이것을 살아있는 현재, 정지하는 지금이라고 한다. 현재는 편시간성으로서 모든 것을 일시에 현전시킨다. 오직 현재만 있고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현전하는 존재성격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처음부터 존재문제와 시간문제를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의성에서 드러난 본래적 시간성을 천명한다. 시간성은 본래적 마음씀의 의미로 드러나는데, 그 마음씀은 본래성에서 보면 선구적 결의성이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적 시간성이다. 시간 양상으로서 과거 및 미래적 현전자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보여진다. 인간은 사라져가는 것과 도래하는 것을 잇는 시간의 주체가 된다.

시간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의식으로 환원시키면 시간의 객관적 측정이라는 아포리아에 부닥치게 되고, 운동으로 시간을 파악하게 되면 시간양상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존재론적으로 분석해 시간의 계기를 둘로 나누어 현존재의 시간계기를 지속으로 보고 시간 내용의 계기를 인간이 만든 것으로 시간 인식이 성립하는 근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